

근로빈곤층의 직업력 분석 -비빈곤층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최 옥 금

(한림대학교)

[요 약]

본 연구는 근로빈곤층이 빈곤한 주요 원인이 이들이 노동시장에서 겪는 불안정한 경험이라는 점에 주목하여, 이들의 직업력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사건배열분석과 최적일치법을 활용하여, 근로빈곤층의 직업력을 노동시장 진입 후 일한 기간, 직업 경력에서의 공백의 수와 그 기간, 거쳐 온 직업의 특성을 통해 총체적으로 이해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근로빈곤층은 비빈곤층과 비교할 때 일한 기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아 이들이 일을 적게 하기 때문에 빈곤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공백의 수와 기간, 직업의 특성을 통해 살펴본 결과 이들은 비빈곤층에 비해 불안정한 노동경험을 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남성과 여성 근로빈곤층 모두는 생애전반에 걸쳐 지속적으로 불안정한 노동경험을 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근로빈곤층을 대상으로 하는 탈빈곤정책에 대해 제언하였다.

주제어: 근로빈곤층, 노동경험, 직업력, 사건배열분석, 최적일치법

1. 서 론

경제위기 이후 우리나라 빈곤층의 성격 변화를 보여주는 것은 근로빈곤층의 증가라 할 수 있다. 노동능력이 없거나 실업상태에 있던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던 이전의 빈곤층과는 달리, 이들은 노동능력이 있거나 혹은 고용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빈곤하기 때문이다(구인회, 2002; 금재호, 2003; 최옥금, 2005; 홍경준, 2004, 2005 등). 따라서 이전의 빈곤층과는 다른 성격을 갖고 있는 만큼, 이들의 성격을 면밀히 분석하는 것이 요구된다. 특히 선행연구에 의하면, 이들은 대부분 저숙련 노동자들로 노

* 이 논문은 최옥금(2008)의 박사 논문 중 일부를 수정·보완한 것이다.

동시간 부족과 임금률 감소로 인한 낮은 임금, 그리고 실업과 취업의 반복 등 노동시장에서 불안정한 경험을 하기 때문에 빈곤에 빠지는 것으로 제기(Levitan · Gallo · Shpiro, 1993; Blank, 1996; Schiller, 2003; 최옥금, 2005 등)되므로, 이들이 노동시장에서 어떠한 경험을 하고 있는지 분석하고, 이것이 함의하는 바를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최근 몇 년 동안 근로빈곤층에 대한 연구가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선행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있다. 근로빈곤층에 대한 선행연구는 이들의 정태적 특성 및 빈곤의 동태성을 살펴본 것들이 대부분인데, 주로 빈곤진입과 탈출을 연구하면서 근로빈곤층 문제를 언급하는 연구(구인회, 2002; 금재호, 2003; 이병희 · 정재호, 2002; 홍경준, 2004 등), 근로빈곤층의 특성과 빈곤의 관계를 규명하는 연구(홍경준, 2005; 김교성 · 최영, 2006 등), 또한 근로빈곤층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의 효과성에 대한 연구(강병구, 2002; 이상은, 2005 등) 및 거시적인 관점에서 근로빈곤층의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구조적 요인을 분석한 연구(Hoynes, 2000; 심상용, 2005; Blank et al, 2006)들이 그 예이다.

한편 본 연구가 관심을 갖는 근로빈곤층의 노동경험에 관한 연구로는 근로빈곤층의 경제활동 상태의 변화 및 고용 상태 변화를 살펴본 연구(노대명 · 최승아, 2004; 이병희, 2005; 석상훈, 2007)가 있으나, 이러한 연구들은 대부분 근로빈곤층의 경제활동 상태 및 현재 일자리의 특성을 정태적으로 살펴본 것들이다. 그러나 근로빈곤층이 현재 노동시장에서 어떠한 상태인지 보여주는 이러한 정태적인 수치는, 현상을 적절히 설명하지 못하거나 제한적으로만 드러낸다는 한계가 있다. 방하남 · 장지연(200)에서 지적하였듯이, 정태적으로 볼 때에는 상당히 안정된 구조를 가진 것처럼 보이는 현상이라도 개인을 단위로 보면 많은 변화를 내포하고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한 시점에서 근로빈곤층이 취업하여 일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장기적으로 관찰하여 이러한 일자리를 얼마나 유지하는지 살펴보면 다른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따라서 근로빈곤층이 노동시장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일해 왔는지, 경력이 중단된 경우와 그 기간, 직업의 특성 등이 어떠한지를 이들의 생애주기를 통해 총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근로빈곤층이 빈곤한 원인과 이러한 선행연구의 한계에 주목하여, 근로빈곤층이 노동시장에서 어떠한 경험을 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한국노동패널의 직업력 자료를 활용하여 15세 이후 이들의 직업력에서 노동경험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확인할 것이다. 이때, 근로빈곤층의 직업력 특성을 더욱 잘 파악하기 위해 비빈곤층의 직업력과 비교하도록 한다. 또한 근로빈곤층의 직업력을 군집화하고, 각 군집의 특성을 통해 근로빈곤층의 직업력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먼저 2장에서는 근로빈곤층의 노동경험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고, 3장에서는 분석자료 및 연구대상, 연구방법을 제시한다. 4장에서는 이러한 방법에 따라 분석된 결과를 제시하며, 마지막으로 5장에서는 분석결과를 종합하고, 이를 통해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도록 한다.

2. 선행연구 고찰

앞에서 지적하였듯이, 근로빈곤층의 노동경험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연구한 논문은 풍부하지 않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국내 연구들은 빈곤의 진입과 탈출에 대한 주제에 집중한 경향이 있다. 그 결과 선행연구에서는 취업 관련 요인이 빈곤의 진입과 탈출에 가장 중요한 요인이며, 빈곤에서 탈출한 가구의 60% 정도가 다시 1년 만에 빈곤에 진입한다고 제시(이병희·정재호, 2002)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통해서는 부수적으로 이들의 노동시장 경험이 불안정할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을 뿐, 이들의 노동경험을 총체적으로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한편, 근로빈곤층의 노동경험에 대한 연구도 일부 존재하는데, 근로빈곤층의 경제활동 상태의 변화 및 고용 상태 변화를 살펴본 연구(노대명 외, 2004; 이병희, 2005; 석상훈, 2007)가 그 예이다.

먼저 근로빈곤층의 고용 상태 변화를 분석한 연구(이병희, 2005)를 살펴보자. 이 연구에 따르면, 근로빈곤층은 비빈곤층에 비해 취업 상태를 유지하는 비율이 낮고, 취업 상태에 있던 근로빈곤층의 15.1%가 다음해에는 비경제활동 상태로 전환한 것으로 나타나 근로빈곤층의 고용 상태 변화가 매우 불안정하다는 것을 제시한다. 또한 취업자에 국한하여 고용 상태 변화를 분석한 결과, 빈곤층에 속하는 상용직 근로자는 비빈곤층에 비해 상용직에 머무를 가능성이 매우 낮은 반면, 실업이나 비경제활동 상태로 이동할 가능성은 높았다. 임시일용직과 같이 고용이 불안정한 근로자도 마찬가지로 상용직 근로자로 전환할 가능성은 낮은 반면, 불안정한 고용 상태가 지속되거나 미취업으로 전환할 가능성은 높았다. 한편 자영업자와 무급가족종사자의 경우에는 고용주나 상용직 근로자로 전환할 가능성은 낮은 반면, 미취업상태로 전환할 가능성은 높은 것으로 나타나, 근로빈곤층은 취업할 가능성이 낮고, 취업하더라도 경력 상승이 제한되며, 빈번하게 노동이동을 경험한다는 것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이를 분석한 다른 연구(노대명 외, 2004; 석상훈, 2007)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곧 근로빈곤층은 임금근로자, 비임금근로자, 미취업의 상태를 반복적으로 경험하며, 임시·일용직처럼 불안정한 일자리를 중심으로 취업과 실업을 반복적으로 경험한다는 것이다.

또한 본 연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근로빈곤층의 직업력 전체를 분석한 연구는 아니지만, 빈곤층의 직업력을 연구한 몇 가지 선행연구를 통해서 이들의 직업력을 좀 더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먼저 근로빈곤층의 최초 직업 및 7년 동안의 직업이력을 살펴본 연구에 따르면, 대부분의 근로빈곤층은 임시일용직에서 일자리를 시작하였으며, 최근의 일자리도 임시일용직이 8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노대명·이태진·강병구·강석훈·홍경준·이인재·송민아·김선미, 2003). 그리고 부천 및 서울 지역의 근로빈곤층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시도한 연구(이주희, 1998)에 따르면, 대부분의 근로빈곤층은 일자리 이동이 매우 빈번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러한 잦은 일자리 이동은 대부분 저임금 일자리 때문이었고, 이를 탈출하고자 자영업으로 전환하여도 결국 대부분 실패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다음으로 생애사 접근을 시도한 연구에서도 근로빈곤층의 노동경험을 분석하였는데, 박경숙·김남줄·김수영·김진수·나금실·박병철·손태홍·이상문·최희경(2005)의 연구와 장원봉·정수남(2005)

의 연구에서는 근로빈곤층이 노동시장에 반복적으로 진입하고 이탈한다는 특성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을 제시하였다. 근로빈곤층은 주로 단순노무직이나 단순서비스직에 종사하고, 업종은 주로 제조업, 서비스업, 농업, 어업이었다. 자영업자의 경우에도 주로 영세자영업(행상, 식당, 이발소 가족일 등)을 수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임금 및 사업 소득도 최저생계비에 미달되는 것으로 나타나, 불안정한 노동경험이 현재까지도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제시하였다. 또한 남춘호·이성호·이상록(2006)의 연구에서도 대부분의 근로빈곤층은 노동의 상향 이동이 제한되어 있고, 불안정한 고용상태에서 끊임없이 취업과 실업을 반복하면서 2차 노동시장을 전전하는 하향 이동의 연쇄가 일어나 노동을 통하여 빈곤을 탈출할 수 없다고 제시하였다.

우리나라와 노동시장 구조가 비슷한 미국에서도 이와 비슷한 연구 결과들이 제시된다. 미국의 근로빈곤층 연구는 대부분 18세 미만의 아동이 있는 어머니를 대상으로 하는 대표적 공공부조 제도인 AFDC(이후 TANF로 변화) 수급자를 대상으로, 이들의 노동경험을 분석한 연구들이 많이 축적되어 있다. 이 연구들은 근로빈곤층의 노동경험과 관련한 각 주제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먼저 수급자들의 수급 탈피 기간과 일자리의 불안정성을 분석한 연구들에 따르면, 이들의 일자리는 지속적으로 유지되지 않기 때문에 일을 통해 빈곤을 탈출하지 못하고, 반복하여 수급자로 되돌아온다고 지적한다(Pavetti and Acs, 2001). 또한 공공부조 수급자들의 수급 탈출 기간을 분석한 연구들에서는, 일을 통해 수급을 탈피했던 25~40%의 수급자들은 저임금 및 일자리의 불안정성 때문에 1년 안에 다시 공공부조 수급자로 되돌아온다는 것을 지적한다(Thornton and Hershey, 1990; Pavetti, 1993; Harris, 1996; Hershey and Pavetti, 1997에서 재인용).

두 번째로 근로빈곤층이 일자리를 유지하는 기간을 분석한 연구로, 1979년에서 1994년 사이의 NLSY(National Longitudinal Survey of Youth)를 이용하여 이들의 일자리 패턴을 분석한 Rangarajan, Schochet, and Chu(1998)의 연구에서는 근로빈곤층의 45%가 일자리를 유지하는 기간이 4개월 정도이며, 75% 이상은 1년 안에 일자리를 잃는다고 제시하였다.

또한 근로빈곤층의 일자리 획득과 실직을 분석한 연구(Ploit, Widom, Edin, Bowie, London, Scott, and Valenzuela, 2001)에 의하면 실직과 새로운 일자리에 취업한 기간이 매우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들이 취업과 실업 상태를 매우 빈번하게 드나든다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것이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들은 일자리를 옮기면서 같은 직종이나 산업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자주 다른 직종과 산업으로 옮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에 따르면 50% 이상이 다른 산업으로 이동하고, 지난 6개월 동안 일한 경험이 있는 사람의 59%가 다른 직종으로 바꾼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근로빈곤층은 일자리를 통해 특정 기술을 충분히 습득하거나 제대로 직업훈련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근로빈곤층의 노동경험을 분석한 선행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근로빈곤층은 일자리를 획득하고 잃는 과정이 빠르고 반복적이며 불안정한 일자리가 지속된다는 것을 제시한다. 또한 직종도 안정적이고 높은 임금을 받는 일자리가 아닌, 저임금에 불안정한 일자리인 영세자영업, 단순서비스업임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살펴본 이러한 선행연구들만으로는 근로빈곤층의 직업력 및 노동경험을 총체적으로 이해하는 데 한계가 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우리나라는 근로빈곤층의 노동시장 경험에 대한 동

태적 연구가 많이 축적되어 있지 않으며, 더욱이 이러한 연구들은 대부분 질적 연구를 통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결과를 일반화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또한 양적 연구인 경우에도 근로빈곤층 직업력의 일부만을 보여주므로, 이를 통해 노동시장에서 근로빈곤층의 노동경험이 어떻게 구조화되는지 파악하기는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근로빈곤층이 노동시장에서 경험한 구체적인 사건들 — 노동시장에서 일한 기간, 일자리 경력이 중단된 경우와 이 기간, 경험한 일자리의 특성 — 을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좀 더 총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3. 분석방법

1) 분석자료 및 연구대상

본 연구의 목적은 근로빈곤층의 직업력을 분석하는 것이므로, 개인의 직업력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는 자료가 요구된다. 이에 본 연구의 분석 자료로 직업력 자료를 포함하고 있는 한국노동패널 자료를 활용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근로빈곤층의 직업력을 살펴볼 것이므로, 현재 근로빈곤층인 사람을 분석대상으로 상정하여 이들의 직업력을 추적할 것이다. 근로빈곤층은 ‘취업빈곤층’, ‘경제활동상태에 있는 빈곤층’, ‘근로 능력이 있는 빈곤층’ 등으로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으나, 여기에서는 우리나라에서 근로빈곤층의 정의는 자활사업과의 연관성에서 ‘근로 능력이 있는 빈곤층’으로 확대되는 경향이 있다는 점(노대명 외, 2004)에 주목하여 근로빈곤층을 ‘근로 능력이 있는 빈곤층’으로 정의할 것이다. 이를 위해 한국노동패널자료에서 주요 활동이 연로라고 응답한 사람은 제외하였고, 심신에 장애가 있는 사람도 제외하였다.¹⁾

한편 본 연구의 대상인 근로빈곤층을 정의하기 위해서는 ‘빈곤’을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가 중요해진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근로빈곤층이 빈곤의 진입과 이탈이 잦으며, 빈곤을 벗어나더라도 대부분 차상위계층에 머문다(구인회, 2002)는 특징에 주목하였다. 또한 근로빈곤층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는 자활사업에서 그 대상을 차상위계층까지 포함하여 시행된다는 점과, 본 연구의 분석자료인 한국노동패널자료에 소득의 과소보고라는 문제가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차상위계층으로 정의하고 있는 최저생계비의 120%를 절대적 빈곤선으로 활용하도록 한다.²⁾

1) 이렇게 근로빈곤층을 정의하는 방식이 확장된 배경에는 앞에서 언급한 자활사업과의 연관성, 곧 정책 지향과 관련이 있다. 그러나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좀 더 실질적인 이유가 있다. 첫째, 근로 능력이 있는 빈곤층의 노동 상태가 매우 유동적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어떤 한 시점에서 이들의 경제 활동 상태에 따라 정의하기보다는, 가장 광범위한 근로 능력이 있는지의 여부에 주목하게 된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저임금 노동시장의 확대로 취업하기가 쉽고, 근로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일을 해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의 확대 등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2) 본 연구의 빈곤선: 2005년도 최저생계비의 120%(단위: 원)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481,759	802,248	1,089,514	1,363,598	1,563,501	1,773,360

또한 근로빈곤층을 조작적으로 정의하기 위해서는 본 연구의 분석 방법과 관련한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 활용할 분석 방법인 최적일치법을 통한 배열의 비교는 모든 사람의 직업력을 대상으로 분석하기에는 무리가 있는데, 첫 번째 이유는 큰 규모의 자료를 활용하면 계산의 부담이 크다는 점이다. “최적일치법은 자료에서 비교할 수 있는 모든 배열의 쌍을 비교하기 때문에, 사례의 수가 n 이라면 실제로 비교해야 할 계열의 쌍은 $n(n-1)/2$ 개가 된다. 따라서 사례의 수가 많아질수록 분석하기가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한준, 2001).”³⁾ 두 번째 이유는 표본의 이질성과 관련이 있다. 본 연구에서처럼 근로빈곤층을 ‘근로능력이 있는 빈곤층’으로 정의할 경우 10대에서 60대까지를 모두 포함하는데, 이들의 직업력을 동일한 것으로 간주하고 비교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또한 20~30대의 경우 아직 직업력이 충분히 진행되지 않았다는 문제가 있으며, 65세 이상일 경우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정의하는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40세 이상부터 65세 미만까지를 대상으로 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그리고 여성은 남성과 다른 생애주기의 특성 때문에 남성과는 다른 직업력이 다르게 나타날 것이라 추정할 수 있다. 실제로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및 노동경험을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여성은 남성과 달리 결혼을 기점으로 고용 상태가 다양하게 분화된다는 것을 제시한다. 여성과 남성의 직업력을 비교한 한준·장지연(2000)의 연구에서도 여성은 남성과 달리 직업력이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직업력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남성과 여성을 구분하여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시한 바, 본 연구에서는 여성과 남성의 직업력을 구분하여 분석하도록 한다.

이때 근로빈곤층을 대상으로 하는 데이터셋(Dataset)을 추출하려면 가구 자료, 개인 자료, 직업력 자료에 산재되어 있는 자료들을 취합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가구 자료 가운데 소득에 대한 문항이 지난해의 소득을 질문한 것임을 고려하여, 8차(2005년) 개인 자료 및 가구 자료에서 분석에 활용할 변수를 취한 뒤, 소득 자료는 9차(2006년) 가구 자료에서 가져오는 방식을 채택하였다. 이를 위해 9차 가구 자료에서 빈곤선 이하에 속한 가구를 추출하고, 이를 8차 가구 자료와 취합하였다. 또한 8차 개인 자료에서 근로빈곤층을 추출한 뒤 이를 가구 자료와 취합하고, 다시 이것을 8차 직업력 자료와 취합하는 과정을 거쳤다. 이렇게 만들어진 자료 가운데 본 연구에서 활용할 직업력 정보가 아예 존재하지 않는 사례와, 일자리의 시작 년도와 종결 시점이 정확하지 않거나 무응답인 경우, 그리고 정보의 값이 논리적이지 않은 사례처럼 직업력 정보가 확실하지 않을 것들을 제외하였다.

이렇게 하여 만들어진 데이터셋(Dataset)은 상태별 지속기간(Episode Data)의 형태로 자료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관심을 갖는 직업력을 분석하려면 자료의 구조를 상태 배열 형태로 바꾸어야 한다. 여기에서는 TDA(Transitional Data Analysis)를 활용하여 이를 수행하였으며, 이때 시간의 기준은 각 개인의 연령으로 하였다. 따라서 최종 데이터셋은 TDA를 통해 직업의 각 배열 형태(Sequence Data)로 구성된 자료이다.⁴⁾

3) 이러한 문제 때문에 최적일치법을 활용하여 일반 남녀의 직업력을 분석한 한준(2001)의 연구에서는 40대 이상만을 대상으로 하고, 이들 가운데 10%의 무작위 표본을 추출하여 분석하였다.

4) 상태별 지속기간 자료의 형태는 분석 대상이 어떤 상태에 머무르는 기간을 중심으로 자료가 구성되어 있는 반면, 상태 배열 자료는 각 시점별로 상태를 나타내는 변수의 배열로 자료가 구성된다. 이

2) 일자리 측정

본 연구에서는 일자리 상태를 살펴보는 변수로 ‘직업’ 변수를 활용하였다. 이는 일자리의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산업, 직업 및 종사상의 지위 가운데 직업이 가장 근로빈곤층의 직업력 차이를 잘 드러낼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임금은 일자리의 질을 보여주는 기준 가운데 하나인데, 산업과 직업별로 구분하여 볼 때 산업별 임금 격차보다 직종별 임금 격차가 더 크다. 또한 일자리의 질을 드러낼 수 있는 임시·일용직과 같은 종사상 지위는 최근 노동시장의 유연화로 증가하였기 때문에 과거의 직업력을 살펴볼 때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⁵⁾ 따라서 여기에서는 일자리를 측정하는 변수로 직업을 활용하도록 한다.

이때 직업 범주를 어떻게 구분할지가 문제가 된다. 한국노동패널자료에서는 통계청의 표준직종분류표를 활용하여, ① 입법공무원, 고위임직원 및 관리자 ② 전문가 ③ 기술공 및 준전문가 ④ 사무 종사자 ⑤ 서비스 종사자 ⑥ 판매 종사자 ⑦ 농업 및 어업 숙련 종사자 ⑧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⑨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⑩ 단순노무 종사자 ⑪ 직업군인 ⑫ 비해당(무직)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도 이를 따르되 직업군인 및 분류 불가능한 직업을 묶고, 직업력에서 일자리가 없는 경우 ‘중간 공백’으로 처리하여 분석하도록 한다.

3)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와 같이 근로빈곤층 직업력의 일부를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직업력 전체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고자 할 경우 유용한 방법으로 제시되는 것은 사건 배열 분석(Event Sequence Analysis)이다 (Abbot, 1983; Abbot and Tsay, 2000; 한준·장지연, 2000; 한준, 2001, 2002). 사건 배열 분석은 탐색적 자료 분석에 입각하여 연속된 상태를 서로 짝지어 비교하고, 그에 근거하여 비슷한 것들을 집락으로 묶어 유형화할 수 있다. 특히 이 방법의 가장 큰 장점은, 연속적인 사건에서 경험적인 분류틀을 만드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장점을 활용하여, 최적일치법에 근거한 사건 배열 분석을 통해 근로빈곤층의 직업력을 분석하고자 한다.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본 연구에서 활용할 한국노동패널자료의 직업력 자료는 상태별 지속기간(Episode Data)의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TDA(Transitional Data Analysis: 이하 TDA)를 활용하여 상태의 배열 형태(Sequence Data)로 전환하였고, 이를 통해 연구 대상이 15세부터 종사한 일자리의 직업력을 분석하였다.

한편, 사건 배열 분석에 제기되는 여러 비판 중 가장 핵심적인 것은 이를 통해서 현상을 ‘기술’할 수 있지만, 분석 결과를 ‘검증’ 할 수 없다는 것이다(Wu, 2000). 이러한 문제 때문에 사건 배열 분석

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준(2001, 2002)을 참고하라.

5) 실제로 종사상 지위를 일자리의 기준으로 활용할 경우, 회고 직업력에서 결측치가 많이 나타난다는 문제가 있다.

을 수행한 선행 연구(Abbott and Hrycak, 1990; Sabherwal and Robey, 1993, 1995; Han and Moen, 1999; Abbot and Tsay, 2000에서 재인용)에서도 이를 실시한 뒤 검증할 수 있는 통계 분석을 시도하였다는 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도 근로빈곤층과 비빈곤층의 차이를 제시할 수 있는 ‘검증 가능한’ 분석을 추가적으로 수행하였다. 따라서 근로빈곤층과 비빈곤층의 직업력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T-test를 실시하였다.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는 최적일치법을 활용하여 근로빈곤층의 정의에 따른 직업력의 군집화를 시도하고자 한다. 최적일치법(Optimal Matching)은 전체 사건의 배열 또는 순서의 형태를 지닌 자료를 분석하는 방법을 제공한다. 예를 들어 두 사람의 연도별 직업력에 대한 자료가 있을 때, 이러한 자료는 각 시점의 상태를 몇 번이나 교체(Substitution), 삽입(Insertation), 삭제>Delete)하는 조작을 거쳐야 두 사람의 직업력이 동일해지는가를 계산한다.⁶⁾

이처럼 두 개의 계열쌍을 조작하여 서로 ‘일치’하도록 만드는 방법은 한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때문에 ‘최적’의 의미가 중요하다. 각각의 교체, 삽입, 삭제가 비교의 대상이 되는 계열쌍을 일종의 ‘비용’을 가져온다고 가정할 때, 최적일치법은 각 계열쌍에 대해 ‘가장 비용이 적게 드는’ 조작을 찾으려 되어 있다. 그 결과 각각의 계열쌍에 대해 전반적인 거리 점수를 부여하게 된다. 이러한 거리 점수를 가지고 군집분석을 이용해서 이들 계열에 몇 개의 유형이 존재하는지, 또는 이들 각 유형의 전형적인 순서는 어떠한지 등을 살펴볼 수 있다(한준·장지연, 2000; 한준, 2001, 2002에서 재구성).

본 연구에서는 삽입과 삭제 비용의 경우 서로 대칭적이며 많은 연구들에서 기본 값인 1을 설정하여 분석하였다(한준, 2001)는 점에 주목하여, 삽입 및 삭제 비용(Indel Cost)을 1로 설정하였다. 또한 교체 비용은 TDA 프로그램에서 상태 사이의 전환 행렬을 분석하여, 각 상태 사이의 전환 빈도에 따라 값을 정하도록 설정하였는데, 이는 근로빈곤층의 고용 상태 전환에 대해서 이론적이나 현실적으로 미리 밝혀진 상태에서 연구를 시작한 것이 아닌 것과 관련이 있다.⁷⁾

이렇게 최적일치분석을 통해 근로빈곤층의 직업력을 살펴본 뒤 이를 각 계열쌍별로 거리를 제시하면, 군집분석을 적용하여 분석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일단 TDA를 통해 계열쌍에 대한 비교가 완료되어 각 계열쌍마다 거리가 계산되면, 이 거리 값을 가지고 근로빈곤층의 직업력을 기준으로 군집을 찾기 위한 군집분석을 수행하였다.⁸⁾

6) 예를 들어 A와 B라는 두 사람의 직업력이 있을 경우, 최적일치법의 기본적인 발상은 이러한 자료를 각 시점에서의 상태를 몇 번이나 교체, 삽입, 삭제하는 조작을 해야 사례 A와 B가 동일하게 만들 수 있는지에 따라 두 배열 간의 거리를 계산하는 것이다(한준 외, 2000; 한준, 2001, 2002).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준(2001, 2002)을 참고하라.

7) 삽입 및 삭제 비용, 교체 비용의 설정과 관련된 부분은 최적일치법에서 가장 논란이 많은 부분으로, 여기에 합의된 의견이 있는 것이 아니며 연구자에 따라 다양하게 활용하기 때문에 그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는 비판(Wu, 2000)이 제기되기도 한다. 그러나 가장 일반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은 본 연구에서와 같이 삽입 및 삭제 비용을 1로, 교체 비용을 data를 통해 설정하는 방법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삽입 및 삭제 비용(Indel Cost)이 교체 비용으로 설정된 가장 큰 값의 1/2 이상이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이 전제를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배열의 길이가 같을 때 삽입 및 삭제 비용이 분석에서 활용되지 않기 때문이다(Abbot and Tsay, 2000; Brzinsky-Fay, 2007a, 2007b). 본 연구에서 활용한 교체 비용 중 가장 큰 값은 2였고, 삽입 및 삭제 비용은 1이므로, 이 전제조건은 충족한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는 군집분석을 시행하는 데이터의 수가 비교적 많은 편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군집분석 가운데 비계층적 군집분석인 K-means 군집분석을 시행하도록 한다. 이 방법은 개체가 어느 한 군집에만 속하도록 하는 상호배반적 군집방법으로서 군집의 수를 미리 정하고, 각 개체가 어느 군집에 속하는지를 분석하는 방법이다. 따라서 분석에서는 각 군집 수를 변화시켜 가면서 그 결과들을 비교하여 군집의 수를 정하도록 한다.

4. 분석결과

1) 연구 대상의 일반적 특성

연구 대상을 선정하기 위해 한국노동패널자료의 8차 가구 자료와 개인 자료, 직업력 자료를 활용하고 빈곤선으로는 최저생계비의 120%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 데이터셋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빈곤율은 12% 정도로 나타났는데, 이는 한국노동패널자료를 활용하여 절대빈곤율을 구한 선행연구들의 결과와 비슷하다. 또한 전체 근로빈곤층을 대상으로 근로빈곤층을 연구한 선행연구들(노대명 외, 2003 등)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여성은 전체의 52%, 남성은 48% 정도로 나타나, 여성이 남성보다 더 많은 것을 확인하였다.

이렇게 최종 데이터셋에 포함된 대상은 434명이다. 이 가운데 남성은 207명이고, 이들 가운데 현재 취업하고 있는 근로빈곤층은 남성 전체의 69.6%, 비취업상태인 근로빈곤층은 30.4%를 차지하였다. 여성은 모두 227명이 연구 대상에 포함되었는데, 이 가운데 취업하고 있는 근로빈곤층은 여성 전체의 48%, 비취업상태인 근로빈곤층은 52%를 차지하였다. 남성과 여성을 비교할 때, 현재 취업 상태인 취업빈곤층은 남성이 여성에 비해 20% 이상 높은 반면 비취업빈곤층의 경우 여성이 남성보다 22%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 남성이 여성보다 더 활발히 노동시장에 참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1>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

(단위: 명, %)

	빈곤층			비빈곤층		
	취업	비취업	계	취업	비취업	계
남	144(69.6)	63(30.4)	207(100)	137(93.2)	10(6.8)	147(100)
여	109(48)	118(52)	227(100)	87(56.5)	67(43.5)	154(100)

또한 근로빈곤층의 직업력 특성을 좀 더 명확히 파악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그 비교 대상으로 비빈곤층을 상정하여 비교·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비빈곤층을 정의할 때 근로빈곤층을 정의할 때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였으며, 사건 배열 분석 및 최적일치법을 적용하기 위해 전체 케이스를 남녀 별

8) 본 연구에서는 이렇게 각 계열쌍의 거리를 가지고 군집분석을 시행할 때, 특정한 기준 배열을 이용하여 최적일치법을 적용하였다. 이에 대한 논의는 한준(2001), Scherer(2001)를 참고하라.

로 각각 10%를 무작위 추출하였다.⁹⁾ 그 결과 전체 비빈곤층은 301명이 포함되었는데, 이 가운데 남성 비빈곤층은 147명이고, 이 가운데 취업비빈곤층은 남성 비빈곤층 전체의 93.2%, 비취업비빈곤층은 6.8%를 차지하였다. 여성 비빈곤층은 모두 154명이 포함되었는데, 이 가운데 취업비빈곤층은 56.5%, 비취업비빈곤층은 43.5%를 차지하였다.¹⁰⁾

이를 근로빈곤층과 비교하면, 남성의 경우 취업하고 있는 사람의 비중은 비빈곤층이 근로빈곤층에 비해 23% 정도 높았고, 비취업자의 비중은 비빈곤층이 근로빈곤층에 비해 10% 정도 낮게 나타났다. 또한 여성의 경우에도 취업한 사람의 비중은 비빈곤층이 근로빈곤층에 비해 8% 정도 높았으며, 비취업자의 경우는 9% 정도 낮았다. 따라서 이렇게 현재 경제활동 특성에 관한 수치만을 가지고 비교할 경우에는 남·녀 모두 비빈곤층이 근로빈곤층에 비해 노동시장에서 더 일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현재 상태에 대한 결과만으로는 근로빈곤층이 비빈곤층에 비해 일을 적게 하기 때문에 빈곤하다고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과연 근로빈곤층이 비빈곤층에 비해 일을 적게 하는 것일까? 이에 대해서는 이후 분석을 통해 자세히 살펴보게 될 것이다.

2) 근로빈곤층 직업력의 특성

(1) 남성 근로빈곤층 직업력의 특성

근로빈곤층과 비빈곤층의 일한 기간과 직업력에서의 공백을 정리한 것은 다음 <표 2>와 같다. 이를 살펴볼 때 직업력은 연령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연령별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우선 근로빈곤층의 직업력에서 일한 기간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이를 살펴본 결과, 전체 남성 근로빈곤층이 평균적으로 일한 기간은 22.62년으로, 이는 빈곤층이 아닌 남성의 평균인 23.14년과 비교할 때 약간 적은 수치이긴 하지만 거의 차이가 없으며, 연령을 통제하여 살펴본 결과도 마찬가지로 나타난다. 이러한 결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를 T-test를 통해 분석한 결과, t값은 .581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이는 근로빈곤층과 비빈곤층 간에 총 일한 기간은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다는 것을 제시한다.

앞의 분석에서 현재 취업한 사람들의 비중이 근로빈곤층보다 비빈곤층에서 23% 정도 높게 나타난 것과 비교하면, 직업력 분석을 통해 이들이 노동시장에서 일한 총 기간을 분석한 결과는 다른 결과를 제시한다고 할 수 있다. 곧 현재의 특성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 근로빈곤층이 일을 적게 하기 때문에

9) 비빈곤층의 전체 사례 수가 많으므로, 분석 상의 부담을 덜기 위해 무작위 추출하였다.

10) 한편, 직업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변수는 연령이다. 남성 근로빈곤층의 경우 40대는 47.8%, 50대는 40.6%, 60대는 11.6%로 나타났으며, 여성 근로빈곤층의 경우 40대가 45.4%, 50대가 37.4%, 60대가 17.2%였다. 또한 남성 비빈곤층의 경우 40대가 50.3%, 50대가 38.8%, 60대가 10.9%였고, 여성 비빈곤층은 40대가 59.1%, 50대가 36.4%, 60대가 4.5%로 나타났다. 남성의 경우 근로빈곤층과 비빈곤층 사이에 연령 구성에서 차이가 거의 없었으나, 여성의 경우에는 근로빈곤층에 비해 비빈곤층의 경우 40대의 비중이 좀 더 높게 나타났으며, 60대의 비중이 낮았다.

빈곤한 것으로 설명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살펴보게 되면 근로빈곤층과 비빈곤층 사이에 일한 기간에서 차이가 거의 없기 때문에 그러한 설명은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현재의 시점과 장기적 관점에서 파악할 때의 이러한 차이는, 근로빈곤층의 노동경험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살펴볼 때 취업한 사람의 비중이 비빈곤층보다 적게 나타나는 것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는 보수주의자들의 주장처럼 근로빈곤층이 노동시장에서 일을 적게 하기 때문에 빈곤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뒷받침한다. 오히려 남성 근로빈곤층의 경우 비빈곤층에 못지않게 노동시장에서 지속적으로 일을 해왔지만, 빈곤하다고 제시할 수 있는 것이다.

<표 2> 남성 근로빈곤층과 비빈곤층의 직업력 비교

항목	근로빈곤층		비빈곤층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일한 기간 (단위: 년)				
40대	17.56	5.56	17.72	5.35
50대	26.13	7.79	27.68	6.50
60대	31.25	6.87	32.06	6.35
전체	22.62	8.39	23.14	8.15
t값	.581			
공백의 수 (단위: 개수)				
40대	1.37	1.09	0.88	0.86
50대	1.19	1.14	0.82	0.86
60대	1.33	1.27	1.18	1.22
전체	1.29	1.12	0.89	0.91
t값	3.734**			
공백 기간 (단위: 년)				
40대	2.97	3.03	1.50	1.93
50대	3.32	4.89	1.50	2.00
60대	4.08	4.57	2.50	2.56
전체	3.24	4.06	1.61	2.04
t값	4.958**			

p<.05=*, p<.01=**

그렇다면 이들이 지속적으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빈곤한 이유는 무엇일까? 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직업력에서 경력이 단절되는 공백의 수 및 그 기간을 확인하도록 하자. 일반적으로 직업력에서 경력의 단절은 직업을 이동하면서 일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한준, 2001). 그러나 앞에서 보았듯이 근로빈곤층은 취업과 실업 및 비경활 상태를 반복하는 특성을 갖기 때문에, 직업력에서 공백의 수가 많고 그 기간이 길게 나타난다면 노동시장에서 불안정한 경험을 했다고 제시할 수 있다. 분석 결과, 평균 공백의 수는 남성 근로빈곤층 전체를 기준으로 할 때 1.29개로 남성 비빈곤층 전체 평균인 0.89개보다 높았으며, T-test 결과 t값은 3.734로 p<.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근로빈곤층이 비빈곤층에 비해 불안정한 노동경험을 했다는 것을 제시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공백의 기간을 통해 보면 어떠한 결과가 나타날까? 공백의 수가 같더라도 그 기간이 다

르면, 기간이 더 길수록 그만큼 불안정한 노동경험을 했다는 것을 의미한다.¹¹⁾ 이를 평균을 통해 살펴본 결과, 전체 남성 근로빈곤층의 평균 공백 기간은 3.24년으로 남성 비빈곤층의 평균인 1.61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T-test를 실시한 결과 t값은 4.958로 $p < .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근로빈곤층과 비빈곤층은 공백의 기간에서 차이가 나타나며, 근로빈곤층의 공백 길이가 길었으므로 근로빈곤층이 비빈곤층에 비해 불안정한 노동경험을 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다음으로 이들이 거쳐 온 직업의 특성을 통해 근로빈곤층의 노동경험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남성 근로빈곤층이 일했던 일자리의 직업 분포는 어떠한지 살펴볼 것인데, 이는 개인이 각 직업에 종사했던 사건(event)의 전체 수와 평균으로 측정하였다. 분석 결과를 <표 3>을 통해 살펴보면, 근로빈곤층의 경우 비빈곤층과 비교할 때 관리자, 전문가나 준전문가와 같은 안정적인 직종에 종사했던 경우의 평균이 .04와 .03인 반면, 비빈곤층의 경우 .08과 .12로 근로빈곤층보다 높으며, 사무 종사자에 일했던 경험은 근로빈곤층이 .14, 비빈곤층이 .25로 비빈곤층의 비중이 높다. 반면 판매종사자나 농업및어업숙련종사자의 경우에는 근로빈곤층이 .39와 .30으로 .26과 .16인 비빈곤층에 비해 높게 나타난다. 곧 남성 근로빈곤층은 생애전반을 통해 살펴볼 때 비빈곤층에 비해 일반적으로 ‘좋은 일자리’로 인식되는 직업에 종사했던 비중이 낮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3> 남성 근로빈곤층과 비빈곤층의 직업의 분포 및 지속기간

(단위: 개수/년)

직종	근로빈곤층		비빈곤층	
	수 분포 합계(평균)	지속기간 합계(평균)	수 분포 합계(평균)	지속기간 합계(평균)
입법공무원 및 관리자	8(.04)	69(.33)	12(.08)	73(.50)
전문가	7(.03)	47(.23)	17(.12)	172(1.17)
기술공 및 준전문가	45(.22)	351(1.70)	40(.27)	393(2.67)
사무 종사자	30(.14)	210(1.01)	37(.25)	312(2.12)
서비스 종사자	27(.13)	165(.80)	22(.15)	151(1.03)
판매 종사자	80(.39)	600(2.90)	38(.26)	374(2.54)
농업 및 어업 숙련 종사자	62(.30)	630(3.04)	23(.16)	303(2.06)
기능원 및 관련 기능	140(.68)	1162(5.61)	88(.60)	853(5.80)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88(.43)	501(2.42)	53(.36)	496(3.37)
단순노무 종사자	79(.38)	553(2.67)	30(.36)	157(1.07)
분류 불가	64(.31)	395(1.91)	30(.20)	118(.80)
전체(N)	566	4683	360	3402

* 전체 사례 수는 전체가 직업에 종사했던 수와 기간을 의미하므로 케이스의 수보다 큼.

다음으로 남성 근로빈곤층이 각 직업에 머물렀던 기간의 분포를 살펴본 결과, 근로빈곤층의 경우

11) 여기에서 공백의 기간은 이들의 총 직업력에서 나타나는 공백의 년수를 의미한다. 곧 현재 50세인 사람이 25~30세까지 일하다가 31~33세까지 실업 상태였다고 가정하자. 이후 34~45세까지 일하고, 다시 46~48세까지 비경황 상태에 머물다가 49세부터 현재까지 일하고 있다면 이 사람의 공백 기간은 총 6년이다.

비빈곤층과 비교할 때 관리자, 전문가나 준전문가와 같은 안정적인 직종에 종사했던 기간의 평균이 .33년과 .23년인 반면, 비빈곤층의 경우 .50년과 1.17년으로 근로빈곤층보다 높으며, 사무종사자에 일했던 기간의 평균은 근로빈곤층이 1.01년, 비빈곤층이 2.12년으로 비빈곤층이 높다. 반면 판매종사자나 농업 및어업숙련종사자, 단순노무종사자의 경우에는 근로빈곤층이 2.90, 3.04, 2.67년으로 2.54, 2.06, 1.07년인 비빈곤층에 비해 오랫동안 일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이들이 거쳤던 일자리의 직업 특성을 살펴보다라도, 근로빈곤층은 비빈곤층에 비해 불안정한 노동경험을 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 여성 근로빈곤층 직업력의 특성

다음으로 여성 근로빈곤층의 직업력을 살펴볼 것인데, 여성의 경우 그 직업력의 특성이 남성과는 다르기 때문에, 남성 직업력과의 비교도 함께 서술하도록 한다.

<표 4> 여성 근로빈곤층과 비빈곤층의 직업력 비교

항목	근로빈곤층		비빈곤층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일한 기간 (단위: 년)				
40대	9.90	6.08	9.83	6.05
50대	12.52	8.23	12.77	9.64
60대	14.77	9.66	17.14	14.40
전체	11.71	7.80	11.25	8.19
t값	.559			
공백의 수 (단위: 개수)				
40대	1.17	1.00	.91	.91
50대	1.01	1.06	.67	.83
60대	.77	.81	.28	.49
전체	1.04	1.00	.79	.88
t값	2.529*			
공백 기간 (단위: 년)				
40대	6.78	6.65	5.47	6.59
50대	5.73	7.90	4.28	7.44
60대	5.38	8.35	6.71	14.54
전체	6.15	7.43	5.08	7.37
t값	1.372			

p<.05=*, p<.01=**

근로빈곤층과 비빈곤층의 일한 기간과 직업력에서의 공백을 정리한 것은 다음 <표 4>와 같다. 우선 이들이 일한 기간을 살펴본 결과, 여성 근로빈곤층이 노동시장에서 일한 평균은 11.71년으로 전체 남성 근로빈곤층의 23.14보다 11년 정도 짧게 나타났는데, 이는 여성이 가구주가 아닐 경우 가구에서 부가 근로자(Secondary Earner)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앞선 분석에서 현재 취업상태에 있는 취업빈곤층의 비중이 근로빈곤층 보다 비빈곤층에서 8% 정도 높게 나타났으나, 직업력을 통해 분석한 결과 여성 비빈곤층은 노동시장에서 일한 기간이 평균 11.25년으로서,

근로빈곤층의 11.71년과 큰 차이가 없고 오히려 약간 긴 편으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이러한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가? 이를 살펴보기 위해 T-test를 실시한 결과, t값은 .559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곧, 근로빈곤층과 비빈곤층 사이에는 일한 차이에 있어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남성과 마찬가지로 한 시점에서 살펴볼 때와 장기적인 관점에서 살펴볼 때 차이가 있음을 제시한다. 곧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빈곤한 가구에 속한 여성들은 그렇지 않은 여성들과 비교할 때 노동시장에서 일한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여성 근로빈곤층의 직업력이 단절되는 공백의 수 및 그 기간을 살펴보겠다. 분석 결과, 평균 공백 수는 여성 근로빈곤층을 기준으로 할 때 1.04개로 나타났는데 이는 여성 비빈곤층의 0.79개에 비해 높은 것이며, T-test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선 결과에서 남성 근로빈곤층은 노동시장에서 지속적으로 일한 사람들이므로 직업력에서 공백의 수가 많다는 것은 일자리 경험이 불안정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지표로 활용할 수 있었다. 그러나 여성의 경우 생애주기에 따라 노동공급이 달라지기 때문에 다른 설명도 가능하다. 곧 여성이 공백의 수가 적게 나타나는 것은, 결혼 전에 노동시장에 참여했다가 이후 출산 및 육아 때문에 노동시장에 재진입하지 않는 것과도 관련이 있다. 따라서 여성의 경우 비빈곤층에 비해 근로빈곤층의 공백의 수가 많은 것은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다. 첫째, 여성 근로빈곤층이 비빈곤층에 비해 노동시장에서 불안정한 경험을 했기 때문이며, 둘째, 여성 근로빈곤층은 비빈곤층에 비해 경력이 단절된 후 노동시장에 재진입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인 것이다. 이는 여성 근로빈곤층은 비빈곤층에 비해 가구소득이 낮기 때문에 노동시장 재진입 비중이 더 높은 것과 관련이 있다고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여성 근로빈곤층의 공백 기간은 6.15년으로서, 이는 남성 근로빈곤층의 3.24년에 비해 2배 정도 높다. 여성 근로빈곤층이 남성 빈곤층에 비해 공백의 수는 낮게 나타난 반면 공백 기간은 남성보다 길게 나타난 것은, 여성이 남성보다 직업력에서 공백이 있는 비중은 낮지만, 공백이 있을 경우 그 지속 기간은 남성보다 더 길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여성이 결혼과 출산 및 육아 같은 생애주기적 요인이 작용하여 직업력이 단절되는 것과 관련이 있다. 한편 여성 비빈곤층의 평균 공백 기간은 5.08년으로 여성 근로빈곤층의 6.15년 보다 1년 정도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이는 빈곤층, 비빈곤층에 상관없이 여성의 생애주기 요인에 따른 공백 기간이 유사한 것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여성 근로빈곤층이 거쳤던 직업의 특성 및 이들이 그러한 직업에 머물렀던 기간은 어떠한가? 먼저 여성 근로빈곤층이 거쳤던 직업을 살펴보자. 여러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여성은 서비스업이나 음식숙박업, 도소매업처럼 직업 위세가 낮은 직종에 많이 종사한다(김재호, 2003; 김가울, 2007 등). 본 분석 결과도 이와 비슷한데, 여성은 직업력을 통해 보았을 때 입법공무원 및 관리자에 종사했던 경우가 없었다. 반면 서비스 종사자, 판매 종사자, 단순노무 종사자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이들이 주로 '여성 중심의 일자리'에 종사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여성 근로빈곤층과 비빈곤층을 비교하면, 근로빈곤층의 경우 비빈곤층과 비교할 때 전문가나 준전문가, 사무종사자와 같은 안정적인 직종에 종사했던 경우의 평균이 .01, .11, .22인 반면, 비빈곤층의 경우 .09와 .14, .40으로 근로빈곤층보다 높게 나타난다. 반면 서비스종사자나 농업및어업속련종사

자, 단순노무종사자의 경우에는 근로빈곤층이 .52, .09, .44로 .38과 .04, .23인 비빈곤층에 비해 높게 나타나 여성 근로빈곤층은 비빈곤층에 비해 좋은 일자리에 종사한 비중이 낮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5> 여성 근로빈곤층과 비빈곤층의 직업의 분포 및 지속기간

(단위: 개수/년)

직종	근로빈곤층		비빈곤층	
	수 분포	지속기간	수 분포	지속기간
	합계(평균)	합계(평균)	합계(평균)	합계(평균)
입법공무원 및 관리자	-	-	-	-
전문가	3(.01)	21(.09)	14(.09)	119(.77)
기술공 및 준전문가	26(.11)	70(.31)	21(.14)	96(.62)
사무 종사자	51(.22)	204(.90)	61(.40)	333(2.16)
서비스 종사자	117(.52)	613(2.70)	59(.38)	242(1.57)
판매 종사자	72(.32)	361(1.59)	59(.38)	372(2.42)
농업 및 어업 숙련 종사자	21(.09)	220(.97)	6(.04)	77(.50)
기능원 및 관련 기능	53(.23)	257(1.13)	35(.23)	237(1.54)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74(.33)	372(1.64)	25(.16)	90(.58)
단순노무 종사자	99(.44)	354(1.56)	35(.23)	122(.79)
분류 불가	40(.18)	188(.83)	16(.10)	45(.29)
전체(N)	516	2660	315	1733

* 전체 사례 수는 전체가 직업에 종사했던 수와 기간을 의미하므로 케이스의 수보다 큼.

다음으로 여성 근로빈곤층이 종사했던 직업의 지속 기간이 어떻게 분포하는지 살펴보자. 이를 살펴 보면, 근로빈곤층의 경우 비빈곤층과 비교할 때 전문가나 준전문가, 사무종사자와 같은 안정적인 직종에 종사했던 기간의 평균이 .09, .31, .90인 반면, 비빈곤층의 경우 .77과 .62, 2.16으로 근로빈곤층보다 높게 나타난다. 물론 전체적으로 여성 비빈곤층도 서비스직이나 판매직에 오랫동안 종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비스종사자나 농업및어업숙련종사자, 단순노무종사자에 종사했던 기간의 평균은 근로빈곤층이 2.70, .97, 1.56으로 1.57과 .50, .79로 나타난 비빈곤층에 비해 높아 근로빈곤층이 비빈곤층에 비해 불안정한 직종의 일자리에서 오랫동안 일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3) 직업력을 바탕으로 한 최적일치분석 결과

다음으로 남·녀 근로빈곤층의 직업력 특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최적일치법을 통해 각 케이스 사이의 거리를 계산하고 이를 바탕으로 군집분석을 실시하였다.¹²⁾

(1) 남성 근로빈곤층의 직업력을 바탕으로 한 군집화

남성 근로빈곤층의 경우 전체 207명을 6개의 군집으로 구분할 수 있었으며, 각 군집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군집1은 20대 중·후반에 일자리 경력을 시작하여, 이를 50대 초반까지 지속하였다. 주된 직

12) 군집은 앞서 살펴본 근로빈곤층의 직업력- 총 일한 기간, 공백의 수 및 그 특성, 직업의 특성-을 바탕으로 하여 의미 있는 집락으로 구분한 것이다.

업은 기술공 및 준전문가로서 이에 오랫동안 종사하였고, 일부 사무직에도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군집들과 비교할 때 군집1은 비교적 안정적인 노동경험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들이 경험한 직업이 기술공 및 준전문가와 같은 안정적인 일자리이며, 비교적 이러한 일자리에서 오랫동안 일하였고 직업력에서 공백이 적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군집2는 주로 20대 초반에 일자리 경력을 시작하여, 주로 기능원 및 관련 기능직종에 종사하였다. 이 군집에 속한 대부분의 사례는 현재 40대이어서 아직 직업력이 진행되고 있는데, 군집1보다 직업력에서 공백의 수가 많고 길이가 긴 편이다. 한편 군집3은 20대 초반에 일자리 경력을 시작하여, 이를 50대 중·후반까지 지속하였다. 특히 이들은 농·어업에 종사한 비중과 단순노무직·판매직에 종사한 비중이 높게 나타났으며, 또한 일자리 경력을 시작한 연령이 다른 군집들보다 빠르기 때문에 노동시장에서 일한 기간이 긴 편으로 나타난다. 군집3에 속한 사례는 대부분 농·어업에서 일을 시작하여 단순노무직과 판매직으로 이동하는 경향을 보인다.

<표 6> 남성 근로빈곤층의 직업력 군집과 그 특성

군집	사례수	유형	직업력의 일반적인 특성
1	12	지속형	주로 20대 중·후반에 직업력을 시작하여 50대 초반까지 지속. 기술공 및 준전문가 직종에 오랫동안 종사하였고, 사무직에도 종사. 다른 군집보다 공백이 적은 편.
2	38		주로 20대 초반에 경력을 시작하여 주로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직종에 종사. 현재 40대가 대부분이어서 직업력이 진행 중인 것으로 보임. 직업력에서 공백이 꽤 나타남.
3	35	이동형	주로 20대 초반에 직업력을 시작하여 50대 중·후반까지 지속. 농·어업 직종에 종사한 비중이 높으며, 단순노무직과 판매직에 종사한 비중도 높게 나타남. 군집 1과 마찬가지로 공백이 적은 편.
4	49		20대 중·후반에 경력 시작. 현재 40대가 대부분이어서 직업력 진행 중. 주로 판매직, 장치기계 조작 직종에 종사. 공백이 꽤 나타남.
5	46	혼합형	20대 초반에 경력 시작. 농어업, 기능원 및 관련 직종, 장치기계 조작 직종, 단순노무직, 판매직 등 여러 직업에 분포하고 있음. 직업의 수가 다른 군집에 비해 많은 편이고, 공백 기간도 긴 편.
6	27		20대 중·후반에 경력 시작. 기술공 및 준전문가, 기능원 및 관련 직종, 장치기계 조작 직종 등에 분포하고 있음. 군집5와 마찬가지로 직업의 수가 많은 편이고, 공백 기간도 긴 편으로 나타남.

군집4부터는 직업 이동이 활발하다는 특성을 띤다. 먼저 군집4는 20대 중반에 일자리 경력을 시작하였는데, 군집3과 유사하게 40대가 대부분으로 나타나 아직 직업력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직업 분포를 보면 판매직에 종사한 비중이 가장 높고, 일부 장치기계 조작 직종에도 종사하였다. 또한 농어업과 단순노무직의 비중도 일부 나타나, 여러 직종을 이동한 특성을 보인다. 따라서 공백의 수가 많고, 그 기간도 다른 군집들보다 긴 편이다. 군집5는 20대 초반에 경력을 시작하여, 농어업·기능원 및 관련 직종·장치기계 조작 직종·단순노무직·판매직 등 여러 직업에 분포하고 있다. 그리고 군집6은 20대 중·후반에 경력을 시작하여, 기술공 및 준전문가·기능원 및 관련 직종·장치기계 조작 직

중 등에 분포하고 있다. 이와 같이 군집 4~6의 경우 군집 1~3보다 직업의 수가 더 많고, 공백의 수도 더 많으며 그 기간이 더 긴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남성 근로빈곤층의 경우 비교적 지속적으로 일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직업력에 따른 군집화를 실시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은 거쳐 온 직업의 특성이었다. 따라서 이에 따라 군집을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었는데, 비교적 한 가지 직업에서 지속적으로 일해 온 군집1과 2는 지속형, 농업에서 종사하다가 다른 직종으로 이동하는 특성을 보이는 군집3은 이동형, 그리고 여러 직업이 혼합되어 나타나는 군집4~6은 혼합형으로 정의하였다.¹³⁾

그렇다면, 다른 군집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노동경험을 한 것으로 보이는 군집1의 경우 빈곤한 이유는 무엇일까? 이를 살펴보고자 여기에서는 각 군집에 속한 사례들의 현재 경제활동상태를 함께 살펴보았다. 군집1에 속한 이들의 현재 경제활동 상태는 취업빈곤층 비중보다 실업빈곤층의 비중이 높으며, 다른 군집과 비교할 때 비경활빈곤층의 비중이 높다는 특성을 나타냈다. 군집1의 경우 전체 가운데 33%만 취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다른 군집들과 비교할 때 낮은 수치이다. 이는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군집1에 속한 사람들이 대부분 연령대가 높기 때문에, 오랫동안 종사했던 전문직과 사무직 일자리를 그만두고 노동시장에서 퇴장했거나 혹은 다시 노동시장에 진입하여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것과 관련이 있다. 그러므로 이들은 안정적인 일자리를 상실하여 빈곤을 경험하는 집단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렇게 비교적 안정적인 노동경험을 한 군집1에 속한 사례는 12명으로 매우 적고, 비교적 노동시장에 진입할 때부터 불안정한 노동경험을 지속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이동형과 혼합형으로 이루어진 군집3~6에 속한 사례가 대부분으로 나타나 남성 근로빈곤층의 경우 비교적 생애전반에 걸쳐 불안정한 노동경험을 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¹⁴⁾

(2) 여성 근로빈곤층의 직업력을 바탕으로 한 군집화

여성 근로빈곤층은 전체 227명 가운데 군집을 형성하지 못하는 사례 1개를 제외¹⁵⁾하고 모두 4개의 군집으로 묶을 수 있었다. 각 군집에 속한 근로빈곤층의 일반적인 특성은 다음 <표 7>과 같다.

군집1은 20대 초반에 주로 농업에서 일자리 경력을 시작하여, 이후 서비스업과 기능원 및 관련 기능직에도 종사하였다. 이들은 노동시장에서 일한 기간이 다른 군집보다 길고, 직업력에서 공백이 적다는 특성을 띤다. 사례가 가장 많은 군집2는, 노동시장에서 일한 총 기간이 평균 4년으로 짧은 편이다. 따라서 이들은 결혼 전이나 후에 일시적으로 노동시장에 참여한 사례일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일한 기간도 다른 군집보다 짧은 편이고, 직업도 서비스업과 단순노무직에 집중되어 있다.

13) 이러한 정의는 한준(2001)에서 직업경력에 따른 군집화를 구분한 것에 따른 것이다. 남성 전체를 대상으로 군집화를 실시한 결과, '지속형'의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혼합형의 비중이 높게 나타난 본 연구의 결과와는 다른 것이다.

14) 각 군집에 속한 사례들의 일반적인 특성 및 군집의 빈곤추이와 같은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최옥금(2008)에 자세히 서술되어 있다.

15) 이 사례는 45년 동안 농업 및 어업 숙련 직종에 종사하였으며, 직업력에서 공백이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 곧 18~62세까지 한 가지 직업에 종사한 경우로서, 생애주기 모형에 따라 직업력에서 공백이 나타나는 일반적인 여성과는 다른 특성을 보였다.

그리고 군집3은 주로 서비스업과 판매직에 종사하였는데, 직업력에서 공백 기간이 긴 편이었다. 따라서 이들은 결혼 전 노동시장에 참여했다가 출산 및 육아 때문에 경력이 단절된 이후 다시 노동시장에 참여한 사례일 것이라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군집4는 주로 20대 중·후반에 일자리 경력을 시작하였는데, 장치기계 조작직·서비스업·판매직·단순노무직 등 여러 직업에 분포되어 있다. 이들은 군집1과 마찬가지로 다른 군집들보다 일한 기간이 긴 편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노동시장에서 일한 것으로 보인다.

<표 7> 여성 근로빈곤층의 직업력 군집과 그 특성

군집	사례수	유형	직업력의 일반적인 특성
1	13	지속형	20대 초반에 일자리 경력 시작. 주로 농어업에 종사하고, 서비스업과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직종에도 일부 종사한 사례가 있음. 일한 기간이 길며, 직업력에서 공백이 적음.
2	91	단절형	일자리 시작 나이가 평균 33세로 높은 편이며, 노동시장에서 일한 기간이 매우 짧음. 결혼 전이나 후에 일시적으로 노동시장에 참여한 사례가 많다. 주로 서비스업과 단순노무직에 종사함.
3	73		주로 서비스업과 판매직에 종사하고, 공백 기간이 매우 긴 특징을 띠며, 곧 결혼 전 노동시장에 참여했다가 출산과 육아 이후 노동시장에 다시 참여하는 사례가 많음. 그러나 총 일한 기간은 짧은 편.
4	49	재진입형	주로 20대 중·후반에 직업력 시작. 장치기계 조작직종, 서비스업, 판매직, 단순노무직 등 여러 직종에 분포되어 있음. 공백 기간이 길어 군집3 처럼 결혼 전 노동시장에 참여했다가 출산과 육아 이후 다시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사례로 구성됨. 반면 군집3과는 달리 공백을 거친 이후 노동시장에서 지속적으로 일함.

한편, 여성 근로빈곤층의 직업력에 따른 군집화 중 가장 큰 특성은 여성의 생애주기에 따라 직업력이 단절된다는 점이었다. 따라서 이에 따라 군집을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었는데, 비교적 노동시장에서 지속적으로 일해 온 군집1은 지속형, 직업력이 단절된 후 노동시장에 재진입하지 않는 군집2는 단절형, 그리고 경력이 단절된 후 노동시장에 재진입하여 다시 일하는 군집3과 군집4는 재진입형으로 정의하였다. <표 7>을 통해 볼 수 있듯이, 지속적으로 일한 군집1에 속한 사례는 13명으로 매우 적으며, 대부분의 사례는 직업력이 단절되는 단절형에 속해 있었다. 또한 종사했던 직업의 특성을 통해 살펴볼 때 주로 불안정한 일자리에서 일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5. 결 론

본 연구는 근로빈곤층이 빈곤한 주요 원인이 노동시장에서 겪는 불안정한 경험 때문이라는 점에 주목하여, 이들의 생애주기에 노동경험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동기에서 출발한 본 연구는 사건배열분석과 최적일치법을 활용하여 이들의 직업력을 일한 기간, 공백의 수 및 그 기간, 직업의 수 및 그 특성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으며, 직업력을 기준으로 이들을 군집화하여 근

로빈곤층의 직업력에 따른 각 군집의 특성을 확인하였다. 그렇다면, 이러한 분석결과는 어떠한 의의를 갖는가?

우선 본 연구는 근로빈곤층의 직업력을 구체적으로 분석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곧 근로빈곤층의 직업력의 일부가 아니라 직업력 전체를 파악하고, 이들의 생애전반에서 노동경험이 어떻게 조직화되는지 살펴보았다는 것이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 근로빈곤층은 비빈곤층과 비교할 때 일한 기간에서 차이가 크지 않았으며, T-test를 실시한 결과, 두 집단 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곧, 이는 근로빈곤층이 비빈곤층에 못지않게 노동시장에서 지속적으로 일했다는 것을 제시하는 것이다.

반면 남성 근로빈곤층의 경우 공백 기간과 공백의 수에서 비빈곤층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여성 근로빈곤층의 경우에도 공백의 수에서 비빈곤층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 근로빈곤층은 비빈곤층에 비해 불안정한 노동경험을 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현재의 경제활동특성에만 초점을 맞추어 살펴본 결과와는 다른 관점을 제시한다. 곧, 현재의 특성에만 초점을 맞출 경우 근로빈곤층은 비빈곤층에 비해 일을 적게 하기 때문에 빈곤한 것이지만, 직업력을 통해 노동시장에서 총 일한 기간, 공백의 수 및 그 기간, 그리고 직업의 특성을 살펴볼 때 근로빈곤층은 일을 적게 하기 때문에 빈곤한 것이 아니라, 불안정한 노동경험을 하기 때문에 빈곤한 것이라 제시할 수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근로빈곤층의 특성을 반영한 근로연계복지 프로그램의 다양화에 대해 시사하는 바가 있다. 현재 한국의 근로연계복지인 자활사업에서 근로빈곤층을 프로그램에 따라 분류하는 기준으로 활용하는 자료는 연령이나 건강과 같이 근로능력을 평가하는 부분이다. 그런데 이는 이들의 근로 의욕이나 근로 의지와 같은 노동시장 진입 가능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박능후, 2001)고 지적된다. 물론 분류 기준 가운데 하나로 활용되는 직업력을 통해 어느 정도 이들의 노동시장 진입 가능성을 반영할 수 있으나 그 기준이 모호하고 형식적으로 취급된다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이들의 특성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이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이들을 배치하는 것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따라서 근로빈곤층의 직업력 특성을 살펴본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이와 관련된 함의를 제시할 수 있다. 남성 근로빈곤층은 이들이 종사한 직업의 특성에 따라 군집화할 수 있었으며, 이들의 종사했던 직업의 특성은 기술공 및 준전문가, 사무직, 농어업, 단순노무직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이들의 이러한 직업력 특성을 바탕으로 하여 노동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 및 관련 직종의 직업훈련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함을 제시할 수 있다. 또한 여성 근로빈곤층의 경우 생애 사건으로 경력 단절되며, 노동시장 진입에도 많은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이러한 여성의 생애주기 특성을 반영한 정책적 대안이 요구된다는 것을 제시할 수 있다. 특히 연구의 대상인 40세에서 65세 미만의 중·고령 여성들이 대부분 인적자본이 낮으며, 주로 판매직과 서비스직에 종사한다는 것을 생각할 때, 이들을 위한 고용 창출 정책의 하나로 사회적 일자리를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물론 현재 사회적 일자리가 장기적인 고용 창출의 의미보다는 일시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는 성격이 강하다는 문제가 제기(김가을, 2007)되고 있지만, 이를 보완하여 장기적인 고용 창출의

수단으로 제공한다면 여성의 생애주기에 맞는 적절한 일자리가 창출되리라 생각된다.

그리고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무엇보다도 우리나라 탈빈곤정책의 방향과 관련된 논의에 함의를 줄 수 있다. 근로빈곤층의 직업력을 분석한 결과, 이들이 빈곤한 이유는 일을 적게 하기 때문이 아니라, 노동시장에서 불안정한 경험을 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현재 근로빈곤층을 대상으로 시행되는 탈빈곤정책의 방향은 근로빈곤층의 복지의존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단순히 일을 조건화하는 소극적인 정책 방향을 벗어나고 있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근로빈곤층의 특성을 파악하고, 이에 맞는 탈빈곤정책을 통해 이들이 일을 통해 빈곤을 탈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으로서의 정책 방향의 전환이 요구된다. 근로빈곤층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들에서 공통적으로 지적하듯이, 이들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일하는데 장애가 되는 요인들을 제거하며, 일자리의 질을 높여서 보다 많은 근로소득을 획득할 수 있도록 유인(홍경준, 2004) 할 수 있는 보다 적극적인 정책들이 필요할 것이다.

연구의 함의와 함께 다음과 같은 한계를 지적할 수 있다. 우선 본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으로 노동시장에서 1년이라도 일한 사람만으로 한정하였다. 곧 노동시장에 참여한 적이 없는 사례는 분석에서 제외되었는데, 이는 비경제활동인구를 일부 배제하여 이들의 특성을 충분히 파악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본 연구는 근로빈곤층의 직업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인과적 분석을 시도하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는 근로빈곤층의 직업력이라는 현상을 이해하는 데에는 유용하지만, 직업력과 관련된 인과관계를 밝히는 데에는 부족함이 있다. 이러한 한계는 향후 후속 연구를 통해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참고문헌

- 강병구. 2002. “자활사업 참여자의 노동시장성과 및 정책과제”. 『공공경제』. 7(1): 79-105.
- 구인회. 2002. “빈곤층의 사회경제적 특성과 빈곤 이행: 경제위기 이후의 시기를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48: 82-112.
- 금재호. 2003. “일과 빈곤”. 『제 4회 한국노동패널 학술대회 논문집』. <http://www.kli.re.kr>.
- 김가을. 2007. “비취업여성의 고용상태 변화와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생애주기별 분석”.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미간행).
- 김교성·최영. 2006. “근로계층의 빈곤 결정요인에 관한 다층분석”. 『한국사회복지학』. 58(2): 119-141.
- 남춘호·이성호·이상록. 2006. “노동 빈곤층의 사회적 배제와 빈곤화 유형분석: 전주시 사례에 대한 생애사 분석을 중심으로”. 『산업노동연구』. 12(1): 259-303.
- 노대명·이태진·강병구·강석훈·홍경준·이인재·송민아·김선미. 2003. 『2002년 저소득층 자활사업 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노대명·최승아. 2004. 『한국 근로빈곤층의 소득·고용실태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박경숙·김남줄·김수영·김진수·나금실·박병철·손태홍·이상문·최희경. 2005. 『빈곤의 순환고리들: 부산, 울산, 경남지역 빈곤층의 생활과 의식』. 동아대학교 출판부.
- 박능후. 2001. 『근로연계복지(Workfare) 프로그램 운영모델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방하남·장지연. 2000. 『여성의 취업과 미취업상태간의 전환과정』. 한국노동연구원.

- 석상훈. 2007. 『한국 빈곤의 동태적 분석』.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미간행).
- 심상용. 2005. “우리나라 근로빈곤의 사회구조적 원인에 대한 실증연구(1982-2004): 거시경제, 노동시장, 분배제도가 근로자기구의 빈곤에 미친 영향의 검증”. 『한국사회복지학』 58(4): 313-339.
- 이병희·정재호. 2002. “경제위기 이후의 빈곤구조 분석: 반복빈곤 및 고용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동향과 전망』. 52: 128-150.
- 이병희. 2005. “빈곤계층의 경제활동상태와 빈곤탈출”. 정진호·황덕순·김재호·이병희·박찬임 편. 『한국의 근로빈곤연구』. 한국노동연구원. 99-118.
- 이상은. 2005.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노동공급 효과”. 『한국사회복지학』 56(2): 71-91.
- 이주희. 1998. 『빈곤근로자의 일과 생활: 사례조사를 중심으로』. 한국노동연구원.
- 장원봉·정수남. 2005. “근로빈곤층의 노동경험과 빈곤화에 관한 연구”. 『도시와 빈곤』. 77: 53-73.
- 최옥금. 2005. “근로빈곤층의 괜찮은 일자리(Decent Job) 이동에 관한 연구: 임금일자리를 중심으로”. 『노동정책연구』 5(1): 1-42.
- _____. 2008. “근로빈곤층의 직업 경력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학위논문(미간행).
- 한 준·장지연. 2000. “정규/비정규직 전환을 중심으로 본 취업력과 생애과정”. 『노동경제논집』. 23: 33-53.
- 한 준. 2001. “최적일치법을 이용한 남녀간 직업 배열의 분석”. 『노동경제논집』. 24(1): 149-176.
- _____. 2002. “사회이동 경로의 배열분석”. 『제 3회 한국노동패널학술대회 논문집』. <http://www.kli.re.kr>.
- 홍경준. 2004. “빈곤에 대한 동태적 분석: 빈곤주기를 중심으로”. 『제 5회 한국노동패널학술대회 논문집』. <http://www.kli.re.kr>.
- _____. 2005. “근로빈곤층에 대한 탐색적 연구: 개념정의와 실태파악”. 『한국사회복지학』 57(2): 119-142.
- Abbot, Andrew. 1983. “Sequences of Social Events: Concepts and Methods for the Analysis of Order in Social Process”. *Historical Methods*. 16(4): 129-157.
- Abbot, Andrew, and Angela Tsay. 2000. “Sequence Analysis and Optimal Matching Methods in Sociology: Review and Prospect”. *Sociological Methods and Research* 29(1): 3-33.
- Blank, Rebecca M. 1996. “The Employment Strategy: Public Policies to Increase Work and Earnings”. in *Confronting Poverty: Prescriptions for Change*. edited by Sheldon H. Danziger, Gary D. Sandefur and Daniel H. Weinberg. Russell Sage Foundation: New York.
- Blank, Rebecca M., Sheldon H. Danziger, and Robert F. Schoeni. 2006. *Working and Poor: How Economic and Policy Changes are Affecting Low-Wage Workers*. Russell Sage Foundation: New York.
- Brzinsky-Fay, Christian. 2007a. “Sequence Analysis: A Brief Introduction and Guide to Use”. Essex, 15th February.
- Brzinsky-Fay, Christian. 2007b. “The Long and Winding Road: Extent, Patterns and Outcomes of Contingent Employment in the UK and Germany”. International Conference for Panel Data Analysis. KLI and KEIS, Seoul 25th-26th October.
- Hershey, Alan M., and LaDonna A. Pavetti. 1997. “Turning Job Finders into Job Keepers”. *The Future of Children Welfare to Work*. 7(1): 74-86.
- Hoynes, Hilary W. 2000. “The Employment, Earnings, and Income of Less Skilled Workers over the

- Business Cycle". in *Finding Jobs: Work and Welfare Reform* edited by David E. Card and Rebecca M. Blank. Russell Sage Foundation: New York.
- Levitan, Sar A., Frank Gallo, and Issac Shpiro. 1993. *Working but Poor*.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 Pavertti, LaDonna, and Gregory Acs. 2001. "Moving Up, Moving Out, or Going Nowhere?: A Study of the Employment Patterns of Young Women and the Implications for Welfare Mothers". *Journal of Policy Analysis and Management*. 20(4): 721-736.
- Ploit, Denide F., Rebecca Widom, Kathryn Edin, Stan Bowie, Andrew S. London, Ellen K. Scott, and Abel Valenzuela. 2001. "Is Work Enough?: The Experiences of Current and Former Welfare Mothers Who Work". Manpower Demonstration Research Corporation". <http://www.mdrc.org/publications/74/execsum.html>.
- Rangarajan, Anu, Peter Schochet, and Dexter Chu. 1998. "Employment Experiences of Welfare Recipients Who Find Jobs: Is Targeting Possible?". MathematicaPolicy Research. www.mathematica-mpr.com/PDFs/EMP-EXP.PDF.
- Rohwer, Götz, and Ulrich Pötter. 2005. "TDA User's Manual". <http://www.stat.ruhr-uni-bochum.de/tda.html>.
- Scherer, Stefani. 2001. "Early Career Patterns: A Comparison of Great Britain and West Germany". *European Sociology Review*. 17(2): 119-144.
- Schiller, Bradley R. 2003. *The Economic of Poverty and Discrimination*. Pearson Prentice Hall.
- Wu, Lawrence L. 2000. "Some Comments on Sequence Analysis and Optimal Matching Methods in Sociology: Review and Prospect". *Sociological Methods and Research*. 29(1): 41-64.

An Analysis of the Job Sequences of the Working Poor

Choi, Ok-Geum

(Post-Doctoral Research Fellow in Hallym University)

After the economic crisis of Korea, the character of Korean Poverty has changed. Most notably, many people are working but poor. Therefore it is important to understand the characteristics of the working poor, especially the unstable work experiences of the working poor since one of the causes of poverty is that. Prior research about the working poor has not fully proven this issue.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job sequences of the working poor. Thus I utilized the KLIPS(Korea Labor and Income Study), and analyzed it by event sequence analysis and optimal matching methods. The job sequences are divided as follows: total years of working in the labor market, the number of gaps and the length of gaps in their careers, and the characteristics of experienced jobs since they have entered the labor market from age 15. As a result, there are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in the total years of working in the labor market. And the number of gaps and the length of gaps in their careers, and the characteristics of experienced jobs show that working poor have been experiencing more unstable than non-poor. Thus, almost all of the male working poor has unstable jobs their whole lives, and the female working poor's job sequences show distinct features according to women's life course. These results can give political implications to the anti-poverty policy in Korea.

Key words: Working Poor, Work Experience, Job Sequence, Event Sequence Analysis, Optimal Matching Methods

[논문 접수일 : 2008년 7월 28일 게재 확정일 : 2008년 10월 20일]